

# 친북·친중한테 이기는 길은 '미국과 연대'뿐



김태산의 올림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나는 50년을 '정치에서 자주'를 주장하는 북한에서 산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북한과 중공에 아첨하며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종북·친중 좌파들은 정말 싫다.

물론 나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상가들이 절대 아니다. 오직 개인의 정치 야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팔아먹는 반역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좌파 반역자들을 청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애국 보수는 죽고 나라는 망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가 제구실을 바로 못해 나라가 종북 역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애국자들은 감옥에서 억울한 생을 보내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신세다.

북·중을 등에 업은 문재인·이재명 같은 자들은 지금 저들의 온갖 죄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윤석열정부를 탄핵하고 정권을 영원히 장악하려고 갖은 악행을 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각종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총출동했고 중국 세력까지 끌어들었다.

그러나 보수 우파는 맨주먹뿐이다. 보수 우파가 만든 각종 사회단체가 수백 개이지만 모두 제각각이고 싸울 방법을 몰라서 움츠리고 있다. 단지 애국심을 안고 모여든 태극기 세력이 서울의 광화문광장과 용산·한남동을 지킬 뿐이다.

그렇지만 보수 우파도 박근혜정부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올바른 조직과 지도자가 없는 자생적인 태극기 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옛그제만 해도 용산 한남동 대통령관저가 공수처 망나니들에게 힘없이 쫓겼다.

사실 애국자들은 북·중을 상대로 누구의 도움도 없는 외롭고도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애국자들을 보호해 줄 공권력도 정부도 없다. 애국 보수가 믿는 것은 오직 법뿐인데 이 나라의 법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 운집한 가운데 대법원 앞까지 행진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미 국민의 편이 아니다. 앞으로 북·중과 결탁한 반동 세력은 중국 용병과 민노총을 앞세워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지금의 한국은 종북·친중 반역자들과 애국 세력과의 총소리 없는 마지막 전쟁 중이다.

애국자들이 종북·친중 좌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다.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다. 좌파는 북·중과 손잡고 막강한 힘으로 나라를 위협하는데 보수 우파는 왜 오랜 친구인 미국의 손을 잡지 않는가.

애국자들은 마음속으로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왜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가. 보체는 아이가 젖을 더 먹는다는 속담도, 목마른 자가 우

물 한다는 속담도 잊지 말라.

한국인은 손자방법을 말로는 잘하면서도 남의 칼로 적을 친다는 방법은 모른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먼저 도움을 청해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한국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먼저 돕자고 하겠는가.

사실 이승만 건국대통령께서 이미 미국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국민에게 알려 주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세웠다. 또 6·25전쟁 때에도 미국에 발빠르게 도움을 청해 나라를 지켜냈고,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애국자들은 어려운 순간에 왜 미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수많은 한미동맹 단체들과 각 병종별사관 학교별·예비역 군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뭐 하는가.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사회단체들과 대사관과 백악관을 찾아가서 미국과 손을 잡고 조국을 움직이고 국민을 묶어 세우고 이끌도록 하라. 또한 스카이드일리 같은 애국 언론사를

을 통해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한국 국민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각종 편지와 청원서들과 사실을 보도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게 한국을 도와줄 명분을 만들어 주고 미국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많은 정치학 박사·교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래 따위나 점쳐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 부정선거 사실을 미국 정부와 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던 민경욱 전 의원처럼 직접 발로 뛰며 미국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좌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이름만 신고해도 개깅 하고 꼬리를 내라는 비겁한 자들이다. 사실 미국이 움직이는 시늉만 해도 좌파는 썰고 애국자들에게는 힘이 된다. 애국자들은 지난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강 쇼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부터 미국과 손잡고 나라 청소도 하고 통일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이 알아서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말자. 하늘 문도, 미국 문도 두드려야 열린다.

# 부진 겪는 '명가' 맨유 언제 다시 뜨려나



스포츠 세상

박병현  
취재본부장

'축구 종가'로 불리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한국 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단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름나 있다.

팀 창단 140년을 넘긴 맨유는 EPL 팀 가운데 인기가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팬층이 두터운 팀이다. 준우승을 해도 팬들이 실망하는 팀이 바로 맨유였다. 구단의 역사와 업적 등에서도 EPL 20개 구단 가운데 최고 명문 구단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맨체스터는 18세기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으며 현재 산업·문화·교육·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유명한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축구 열정이 매우 높은 도시다.

조지 베스트(잉글랜드)·에릭 칸토나(프랑스)·로이 킨(아일랜드)·웨인 루니(잉글랜드)·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같은 맨유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뛰어난 기술과 리더십 등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은 게 사실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때 맹활약했던 박지성이 2005년부터 7년간 맨유의 유니폼을 입은 것도 맨유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불렸으며 맨유 경기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열려 한국 축구 팬들의 밤잠을 못 이루게 했을 정도다.

2007~08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주목할 만한 플레이를 펼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UCL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지성은 2011~12시즌 런던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EPL 원정 경기에서 맨유 200번째 경기 출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맨유가 고공비행을 한 것은 박지성이 맨유의 붉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 께를 같이 한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것은 박지성을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인트호벤에서 영입한 스코틀랜드 출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다. 선수 시절 이렇다 할 유명 선수로 활약하지 못했지만 그는 지도자로서는 대성공을 거뒀다.

퍼거슨은 잉글랜드 축구단의 감독으로 처음으로 트레블(EPL·FA컵·UCL 등 메이저 축구 3관왕)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국왕 탄생일 공식 기념행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80세를 넘겼으면서도 맨유의 흡인물인 트레퍼드 구장을 종종 찾은 퍼거슨은 '씨(Sir) 기사 작위에 붙이는 존칭'이라고 불린다. 그는 감독으로 활동하던 28시즌 동안 무려 48개의 우승 트로피를 획득하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감독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여생을 스트레스 없이 부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팀을 떠난 이후 격동의 시간을 겪으며 사령탑을 수없이 바꿨다. 퍼거슨 이후 EPL 에버튼을 지휘했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7개월 만에 경질되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해리 맥과이어(왼쪽)가 1일(한국시간) 뉴캐슬과의 리그 홈 경기에서 0-2로 패한 뒤 침울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나서고 있다.

'맨유의 레전드'로 꼽히는 라이언 기스 대행 체제로 팀을 꾸렸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다.

이후 루이 판 할(네덜란드)·조제 무리뉴(포르투갈)·올레 군나르 솔샤르(노르웨이) 감독에 마이클 캐릭(잉글랜드) 감독 대행 이후 에릭 텐하흐(네덜란드)에게 지휘봉을 맡겼으나 도통 성적을 내지 못했

다. 지난해 11월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스포르팅 CP의 '젊은 사령탑' 후행 아모리우를 영입했지만 사령탑 교체에 약탈도 실패하지 않았다.

퍼거슨 감독이 사령탑에서 물러나고 10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맨유는 우승 컵과는 거리가 멀었다. EPL 4위 이내 팀에게 주어지는 유럽 클럽축구 국가대항

전인 UCL 티켓을 차지한 경우도 가뭄에 콩나듯 했다. 지난 시즌 최종 8위를 기록, 1989~90시즌(13위) 이후 EPL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맨유는 이번 시즌에는 설상가상의 형국이다. 과거의 명성을 뒤로하고 망가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맨유는 12월에 치른 공식전 8경기(EPL 6경기·유로파리그 1경기·리그컵 1경기)에서 6패(EPL 5패·리그컵 1패)를 당하는 수모를 맞았다. 맨유가 한 달 동안 공식전에서 6패를 당한 것은 무려 94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순위도 13위(승점 23·승5무9패)로 강등권인 18위와 멀지 않다.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이 지배하고 있던 맨유 구단을 2023년 겨울에 인수한 짐 래드클리프(영국) 구단주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명가 재건에 나서려면 감독 교체로만 끝내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보다 본질적인 우수 선수 영입 등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세계 최고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면서 "팀이 우승할 수 있는 세계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던 취임 일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맨유의 비상을 보고 싶다.

www.segistar.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QN-15-0105

대한민국입니다

이 제품은 유통기(가)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정직합니다!

- 정직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약속합니다
- 어떠한 편법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 세기보청기는 전국 세기보청기 대리점에서만 취급합니다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전국점망

서울 중로2가점(금강제약 옆) 02)2276-0587-9, 02)733-0220 /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 마포점(안리동 고개 신한은행 근처) 02)706-0303 /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 032)421-2288 / 수원점(남문 우리은행 앞) 031)246-5110 / 부천점(롯데백화점 중동점 옆) 032)329-4400 /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옆) 031)821-6655 / 안양점(백산소방·2001 아울렛 옆) 031)469-0110-1 / 용인점(용인내거리) 031)336-1090 / 오산점(오산역 앞) 031)378-4183 / 구리·남양주점(구리동기소 앞) 031)593-9903 /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8-8800 / 울산 울산(공업탑로터리) 052)268-2283 / 경남 진주점(중앙로터리 옆) 055)745-9870 / 창원점(창원역 앞, 동명빌딩 5층) 055)273-8242 / 대구 동인점(동인내거리) 053)425-4440 / 삼척점(삼척내거리) 053)426-1511 /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 053)425-7575 / 경북 포항점(육거리) 054)244-5110 / 안동점(구 안동농고내거리) 054)859-2248 /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 063)252-5728 / 군산점(구.시청정문 옆) 063)446-0198 / 익산점(북부시장내거리) 063)838-5600 / 남원점(시장내거리) 063)632-2626 / 대전 대전점(구.충남도청 옆) 042)254-5110 / 대전점(대전역 앞) 042)255-4900 /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 041)553-2888 / 광주점(공주큰사거리) 041)852-5110 / 충북 청주점(현.홍플러스구속리산고속맞은편) 043)222-1177-8 / 충청점(삼원로터리) 043)852-1414 /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 033)647-0588 / 춘천점(팔호광장 옆) 033)253-5110 /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 064)753-4358